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진 관 훈*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가내공업의 개념과 의의
- III.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동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의 성장, 변화과정 및 경제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제주도 경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총생산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 및 2차산업 비중이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역시 총생산에서 공업을 포함한 2차산업의 생산규모나 비중이 미미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런 영향으로 이 부문이 산업구조의 균형, 국가경제의 안정적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 등과 같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전체의 관심과 경제사적 연구의의가 다소 등한시 되어왔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가내공업'은 엄격히 말하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말하는 공업의 범위보다는 제한적이고 부분적 개념이다. 그러나 일제하 제주도 경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대부분의 공업은 제한적이고 부분적 의미의 공업, 즉 가내공업의 영역에 포함되었었다고 여겨지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제하 제주도 가내공업의 고찰을 일제하 공업 전체의 연구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 제주한라대 강사,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경제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회사 혹은 일상생활사의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개척이라는 의미와 함께 식민지하 조선의 가내공업은 쇠퇴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자급적 생산활동을 꾸준히 존속시켰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자급부문의 존속의 근거 내지 논리를 구명하는 가운데, 식민지적 특수성이라는 것을 밝혀보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당시의 가내공업은 보편적 과정으로서 '상품경제화의 진전' 과 수입대체적 성격을 지닌 '자급화'의 두 성격을 모두 지닌 채, '상품화'와 '자급화'의 모순·길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 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가내공업' 연구역시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사회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던 '상품경제화'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제주도 경제가 상품화제품 생산의 확장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경제현실에 적응해 가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제주도의 경제환경상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는 상황에서 수입대체적 제품생산, 자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생산확장을 통해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을 가속화시킨 점이다. 이 두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내공업의 변화와 성장을 분석해 보며 궁극적으로는 총생산에 있어 가내공업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아울러 이 시기 가내공업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변화의 경향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우선 가내공업의 개념과 의의를 육지부와 제주도와와의 비교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것을 기초로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가내공업의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제품별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연속적인 시계열 분석은 행하지 못했다.

II. 가내공업의 개념과 의의

이 장에서는 가내공업에 관한 몇가지 탁월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내공업'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육지부의 가내공업과 제주도 가내공업과의 비교이다. 개념면에서는 그 의

1) 조성원, "가내공업의 의의와 생산액추계문제", 「한국현대사 연구」 제1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8, pp. 113~114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미가 덜하겠지만 가내공업의 의의와 특징면에서는 비교의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비교를 기초로 하여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확보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먼저 가내공업의 개념은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에 관해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글을 쓰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준 장지용의 논문²⁾을 인용하였다. 장지용은 가내공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두 자료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³⁾ 이 자료에 의하면 “가내공업이란 가정에서의 공업으로써, 가족이 종사하고, 거주지, 혹은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공업”으로 정의된다.⁴⁾ 이는 가정수공업, 공장수공업, 그리고 가정기계 공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계계 공장공업과 구별된다.⁵⁾

그러므로 가정공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공장(기계)공업과 구분되고 있다. 첫째, 작업장이 가정이거나 혹은 인접한 지역으로 소규모의 작업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소적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장수공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체계를 또 다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28년의 『家庭工業調査』에서는 비록 공장수공업이라고 분류하여 ‘공장’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긴 하지만 수공업을 기본

2) 장지용,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 가장 대표적인 두 자료는 1927년에 간행된 『家庭工業調査』와 1937년에 간행된 『朝鮮における家庭工業調査』이다. 이 중에서 특히 가정공업조사는 가내공업의 명칭(품명), 산지 및 주요생산자의 소재지 주소 이름 혹은 공장명, 사용재료(수량, 가격, 산지), 설비의 개요, 공정의 개요, 종업자에 관한 사항(종업자수, 일일의 생산고, 임금, 기술습득일수), 제조기간, 생산액(수량, 가격, 단위), 용도, 판로, 생산상 및 거래상의 결함, 道廳 혹은 府廳 기타의 장려상황 및 이후의 장려방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京城商業會議所, 『家庭工業調査』, 1927, 2.;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おける家庭工業調査』, 1937.

4) 京城商業會議所, 『家庭工業調査』, 1927, 2, pp.1~8.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おける家庭工業調査』, 1937, pp.3~4. 家庭工業과 대비되는 工場工業의 특징에 대해서는 『朝鮮金融經濟研究新書』, 제 17집, 『工業』, pp.6~7 참조.

5) ‘家庭手工業’이란 가정이라는 좁은 장소에서 수족을 사용하거나, 혹은 수족에 의해 취급될 수 있는 정도의 소도구 혹은 소기계를 사용하여 가족노동력에 의해 행해지는 공업을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공업이 이러한 가정수공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工場手工業’은 공장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넓은 건물 내에서 다수의 종업자가 집단을 이루어 행하는 것으로서의 수공업이다. 이들 공장에는 수십인의 직공이 함께 작업하고 있지만 그 작업은 동력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각자의 수족에 의해 繰絲機, 또는 직기를 움직이는 것이다. 즉 이들 공장에서는 비록 동력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작업의 주요부가 기계화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家庭機械工業’은 가정내에서 혹은 가정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접한 작은 건물에서 소마력에 의해 운전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공업이다.

적인 기술체계로 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규정한 가내공업의 개념을 제주도 가내공업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주도의 수공업과 합방이전부터 제주도에 입주하여 각종 수산물 가공업을 해오던 일본인 통조림공장을 어떻게 결합 혹은 분리하여 분석하는가 하는 문제와 육지부에 비해 기계제 공장공업 발달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내공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만일 고용인 기준으로 한다던가 소규모 작업장이라는 장소적 규정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 이를 더욱 모호하게 하는 것은 자료의 문제이다. 확보된 자료가 불연속적이고 불충분하여 가득이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 심각성은 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수공업과 소규모 공장 등을 포함한 제주도내 대부분의 공장공업을 모두 포괄하여 가내공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분석의 편의상 유리하다고 본다. 사실상 일제하 제주도의 공업발전은 가내공업 수준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 안되는 당시 자료들, 예를 들면 『생활상태조사』, 『제주도세요람』 등에 자료에 있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렇듯 가내공업 개념에 있어서는 육지부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내공업의 특징과 변화과정에 있어서는 육지부와 제주도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아진다.

가내공업은 원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급화의 부분과 전업적인 상품생산을 행하는 상품화 부분이 혼재해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즉 이 시기 가내공업의 상품화 정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가내공업의 변화와 성장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특히 전체 가내공업에서 자급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원으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내공업이 반드시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에만 관련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적극적 상품판매를 통한 현금수입의 획득이 아닌, 현금지출의 절약을 위한 자급목적의 생산도 존재하고 이 것들 소득확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결국 가내공업의 변화와 성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말하면 지역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급화와 상품화의 두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진다.

즉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중되지 않고, 두가지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지역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내공업 생산액의 추계방법은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가내공업은 자료들에서도 나타나듯, 전체생산에 대한 가내공업 구분이 모호한 상태여서 실증적이고 명확한 분석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은 공산액, 공장액 등에 열거되어 있는 제품명으로 부터 명백히 가내공업으로 보이는 품목만을 추려내어 일일이 가산하는 품목별 파악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육지부에서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주도 형편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어 져야 한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제주도에서 작성된 자료에 나타난 제품 대부분이 육지부의 가내공업제품과 동일한 것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분을 위한 수고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급화의 목적이냐 상품화의 목적이냐 하는 구분은 이출-이입품과 소비량 추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개별 제품을 통한 가내공업 생산의 파악을 위해 역시 장지용의 글에서 <표 1>을 재인용하였다.⁶⁾

<표 1> 1930년대 전반의 주요 가내공업 생산품

(단위 : %)

대분류	중분류	1931		1932		1933		1935	
		A	B	A	B	A	B	A	B
방직 공업	제 사	19.5	2.6	23.0	3.7	20.5	3.1	18.2	2.3
	직 물	69.6	9.1	69.7	11.0	75.3	11.2	76.6	9.9
	(綿織物)			(26.6)	(34.2)	(34.6)			
	(絹織物)			(15.7)	(21.7)	(26.0)			
	(交織物)			-	(3.3)	(5.8)			
(麻織物)	(27.4)	(40.9)	(33.6)						
	메 리 야 스	5.2	0.7	2.5	0.4	3.5	0.5	3.3	0.4
금속	주 물	6.6	0.3	10.8	0.3	14.9	0.4	11.2	0.3
	주물 이외 금속	53.5	2.5	63.1	1.3	70.5	1.8	77.9	2.1
	기 타	26.9	1.2	-	-	14.6	0.4	10.9	0.3
기계 기구	農具·土工具	29.8	0.5	29.7	0.5	27.0	0.4	26.2	0.4
	차 량	21.0	0.4	18.0	0.3	23.6	0.4	26.2	0.4
	선 박	25.5	0.2	30.4	0.5	26.0	0.4	29.8	0.5
요업	도 자 기	56.8	1.0	53.3	0.9	54.2	0.8	56.2	0.7

6) 장지용, "1930년대 가내공업 주요 생산품 분석", 경제사학회월례발표회 발표논문, 1999, pp.3~4.

耽羅文化 20號

대분류	중분류	1931		1932		1933		1935	
		A	B	A	B	A	B	A	B
화학 공업	약재	21.3	1.8	19.3	1.8	11.9	1.4	7.8	1.1
	植物油脂	18.0	1.5	19.3	1.6	12.8	1.5	9.5	1.3
	動物油脂	15.1	1.3	8.9	0.9	12.7	1.4	28.8	4.1
	製紙	15.9	1.3	9.6	0.9	12.1	1.4	8.1	1.2
	植物質肥料	4.5	0.4	-	-	15.5	1.8	3.3	0.
	動物質肥料	18.3	1.5	12.0	1.1	13.5	1.5	25.0	3.6
	연탄	0.9	0.1	7.7	0.7	4.7	0.5	3.0	0.4
	목탄	-	-	16.2	1.5	12.9	1.5	10.5	1.5
목제			3.5						
	建具	-	-	-	-	28.4	0.7	26.1	0.6
	家具	-	-	50.4	1.2	51.6	1.4	52.2	1.3
식료품	주류	52.9	27.0	26.9	19.5	41.6	20.4	35.8	16.6
	간장	2.5	1.3	11.4	8.2	17.8	8.7	21.1	9.8
	된장	1.0	0.5	1.9	1.4	5.2	2.6	8.1	3.8
	製粉	3.0	1.5	4.0	2.9	6.8	3.3	5.0	2.3
	澱粉	0.4	0.2	0.8	0.6	0.5	0.2	0.5	0.2
	과자	11.2	5.7	6.5	4.7	7.6	3.7	6.3	2.9
	빵	1.4	0.7	-	-	1.0	0.5	1.4	0.7
	축산품	1.5	0.7	-	-	0.1	0.0	0.1	0.0
	수산품	12.0	6.2	2.2	1.6	11.2	5.5	12.5	5.8
	麵類	2.7	1.4	-	-	2.1	1.0	3.0	1.3
	누룩	10.0	5.1	5.1	3.7	2.4	1.2	2.0	0.9
	기타	0.2	0.1	-	-	2.1	1.0	1.9	0.9
잡공업	紙製品	4.5	0.7	3.2	0.6	3.0	0.5	2.7	0.5
	죽제품	5.0	0.8	2.9	0.5	2.7	0.4	2.2	0.4
	벗짚제품	47.8	7.7	46.6	8.1	46.0	7.6	52.9	9.8
	莞草筵	4.1	0.7	3.1	0.5	3.7	0.6	3.7	0.7
	皮革製品	7.9	1.3	4.1	0.7	4.8	0.8	4.1	0.8
	縫製品	15.1	2.4	11.2	1.9	23.0	3.8	25.6	4.7
	신발류	2.7	0.4	-	-	3.3	0.6	2.6	0.5
其他	0.2	0.0	-	-	5.1	0.9	0.7	0.1	
합계			64.4		54.9		63.3		62.7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주: 1) A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분류에서 해당 생산품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리고 B는 전체 가내공업에서 해당생산품의 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2)면직물등의 비중에 있어서 1932년의 경우는 각 소분류가 방직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반면 1933년과 1935년의 경우의 소분류의 비중은 중분류에서의 비중을 나타낸다. 또 1933년과 1935년의 경우는 세분류를 조정하여 소분류로 다시 계산하였다. 3)1932년의 금속공업중 주물은 냄비와 가마의 생산액을, 그리고 주물 이외의 금속제품은 양철캔류, 금 백금 및 은기, 眞鍮器의 생산액의 합계임. 4)1931년과 1932년의 기계공업중 차량은 荷車의 생산액임. 5)1932년의 식료품공업중 수산품은 김의 생산액이고, 잡공업의 벗짚제품은 가마니와 새끼의 생산액, 그리고 봉제품은 양복 외투류의 생산액임.

자료: 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33, 1937. 2)朝鮮總督府殖産局, 『昭和8年の家内工業統計』, 『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6권, 1935. 3)朝鮮殖産銀行調査課, 『朝鮮に於ける工業會社の資本調査』, 1934. 4)京城商工會議所, 『朝鮮工業基本調査概要』, 1934. 5)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の家内工業統計』, 『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8권, 1937. 6)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家庭工業調査』, 1937. 7)이여성, 『숫자조선연구』, 제5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한국경제사논저집』 7, 大晟社, 1984)

〈표 1〉에서 대분류, 중분류에 의한 가내공업 제품명과 이들 제품의 1930년대 생산변화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볼때 금속, 기계, 잡공업중 벗짚제품 등은 다르지만 방직, 식료, 화학, 잡공업등의 제품은 육지부와 제주도 모두 매우 유사한 변화과정을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내공업의 특징을 보면, 가내공업은 대부분의 경우 계절적 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 등의 일차산물의 단순가공에 지나지 않으며, 전업적 이라기 보다는 가계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혹은 어업과의 관련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가내공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수산물 가공업, 통조림등의 생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가내공업의 성장은 외연적 확대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진다. 전통적인 부문 혹은 자급적 부문의 경우는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생산의 외연적 확대를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권력이 가하는 압박에 저항하여 최소한의 재생산을 보장하고자 하는 농민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현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농민의 노력이 지극히 낮은 호당 생산액에도 불구하고 가내공업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었다고 파악된다.

제주도 농촌은 1930년대에 이르러 농가의 현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를 충당시켜 준 것이 해녀소득과 도일제주도민들의 송금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급격히 증가하던 당시 농촌의 현금수요를 모두 충족시켰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농촌에서도 현금구득을 위한 부업적 성격의 가내공업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내공업 성장 모두를 생산의 외연적 확대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가내공업이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아주 빠른 적응을 보이며 공장공업의 진출이 불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하거나, 혹은 새로운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생산으로 진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내공업의 성장이 최소한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외연적 확대의 과정이었지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일반농민의 빠른 상황적응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예를 들면, 1930년대 중반이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부문의 가내공업 성장이 그 경우라고 하겠다.

지역적으로 가내공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면, 각 지역은 그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부문을 중심으로 가내공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상품화의 정도가 높았거나, 적어도 상품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지역의 경우는 소비시장을 겨냥한 가내공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공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또 남부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외연적 확대를 통한 성장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벗짚제품, 혹은 봉제품 등의 잠공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생산에 의해서만 지역 가내공업의 성장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부분에서 밝혀지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도, 제주도의 자연자원, 환경을 최대로 이용하여 당시의 경제적 환경에 부합되는 가내공업성장이

7) 장지용은 이에 대하여 그의 결론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요에 기반한 성장, 지역적 특성을 가진 농민의 대응, 밑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분출을 통한 소공장공업의 성장이라는 현상은 가내공업의 상황적응력과 역동성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즉 가내공업은 가내공업에 대한 제약조건이 완화되었거나 혹은 적당한 지원이 주어졌다면 공장공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가내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공업이 공장공업으로의 성장이 저지되었고,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가내공업으로써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품화 진전의 예로, 농수산 가공품과 옥도, 각종 동식물기름, 고구마, 전분 등과 같은 군수물자가 있었고, 지형적 이유에 기인한 자급화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양말, 양조 등 자급제품 생산증가가 결국 농촌소득 증대, 농촌현금보유량 증대의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배합되어 제주도 가내공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Ⅲ.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동

합방초기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이 대부분이었고 약간의 수공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당시 제주도의 가내공업 수준을 묘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제주도의 공업은 유치한 수준 단계로 제주도의 자원, 즉 자연환경을 이용한 약간의 자원을 가공하는 수공업제품들 예를 들면,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양태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주로 자급적 성격을 지닌 약간의 면직물제품이 존재했었다”⁸⁾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내공업은 1920년 중반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 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즉 상품경제화에 편응한 제품의 생산의 증가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산물 가공업인데, 제주도 연안의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들과 이외에 패각류를 가공하여 단추등을 만드는 공업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급자족의 성격을 지닌 제품의 등장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식료품의 하나인 양조와 이에 필요한 누룩생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양말, 간단한 농기구제품, 1930년대 중반에 와서 증가하는 과자, 청량음료,제빙 등과 같은 제품이다. 결국, ‘상품경제화의 진전’과 ‘자급화’의 두축 속에서 제주도 가내공업이 성장을 해왔다고 보아진다.

〈표 2〉는 일제초기 제주도 가내공업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8) 고정중, 「제주도편람」, 1930, p.36.

〈표 2〉 공산물조사표 (1913년)

면포		麻布		絹布		紙		莞筵		도자기		素燒物		금속제품		죽제품		菓製品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12,14 6反	12,35 4엔	4,754 反	7,652 엔	28反	168 엔	60,00 0매	180 엔	1,043 매	426 엔	5,700 개	3,260 엔	2,000	1,660 엔	2,900	4,301 엔	68,98 2	9,311 엔	28,98 6매	4,685 엔

자료: 전라남도제주군청, 『제주군세일반』, 1914, pp.71~72.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제주도 가내공업은 전통적 품목으로 방직물과 죽제품, 조선인모자, 탕건, 양태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일본인들의 제주도 진출과 함께 나타난 제품, 즉,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통조림, 패각류를 이용한 단추제조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표 2〉에서 수산물가공업과 패각류등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이들 제품이 생산과 동시에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이들 제품 생산에 제주도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당시 생산의 규모, 상대적 비중등을 파악하기는 힘이 들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능한 것은, 그 당시 제주도의 이출입상황의 비교를 통해 공산물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3〉 식민시대 초기 이·출입 상황

(이입 상황)

품명\연도	1911		1912		1913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백 미	169석	3,377	1,549	30,980	1,853	37,894
碎 米	-	-	-	-	2,054	29,350
栗	-	-	-	-	1,044	9,919
麥 粉	2,675근	214	-	-	197,262	9,919
素 麪	2,588근	440	12,694	2,158	40,153	4,819
백목면	1,557疋	2,180	3,429	4,800	5,750	8,050
마 포	5,971疋	10,150	-	-	6,538	11,114
청 주	95疋	4,480	89	4,200	259	12,052
맥 주	210疋	504	-	-	848	1,969
醬 油	17석	592	28	990	43	1,505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품명\연도	1911		1912		1913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미 증	37관	186	-	-	51	256
연 초	-	4,906	-	2,400	-	14,776
사 탕	14,417근	1,720	41,667	5,000	90,500	10,860
금 물	-	1,552	-	-	-	2,791
陶 器	-	985	-	-	-	1,860
燐 寸	129묘	517	501	2,040	692	2,768
馬 尾	257근	180	-	-	717	780
石 油	81근	2,916	352	-	-	-
잡 화	-	20,976	-	-	-	57,703
계		55,685	-	-	-	214,248

<이출 상황>

품명\연도	1911		1912		1913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수 량	가격(円)
미 증	37관	186	-	-	51	256
생 어	873,000	3,532	955,000	3,820	113,000	4,520
천 초	33,200	1,826	44,260	2,225	80,363	4,420
片 脯	-	-	700	350	6,560	3,280
구 곡	1,904관	950	1,328	660	6,816	3,409
筍 子	1,800관	900	2,871	1,436	3,000,1500	
엽 어	2,308근	600	32,927	9,015	23,564	6,126
계 란	53,900근	3,431	515,450	5,125	1,071,200	10,758
粟	3,65석	18,175	-	-	-	-
馬 皮	80석	110	125	200	215	300
月 梳	116,333석	700	132,833	785	124,666	808
牛 皮	1,260석	6,800	1,120	5,600	20,265	6,750

자료: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2 제주도』, 1929, pp.88~89.

주: 공란은 자료 부족으로 작성 못함.

〈표 3〉에서 보여지듯, 이출품목에는 전통적 수공업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笊子, 馬皮, 牛皮 등으로 제품의 다양성이나 규모면에서 미약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일상용품, 공산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던 농촌의 소비행태를 제주도 자체에서는 전혀 소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1910년대 초기 제주도의 가내공업은 수준이 미약하였고 도외로 반출되는 품목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수입대체의 목적, 자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생산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진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1910년대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한 패각류나, 통조림 혹은 수산물 가공업등과 같은 제품은 주로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진출하여 스스로 경영하였고 제품도 바로 일본으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다.(고용창출효과나 지역내부의 자본,기술의 축적등에 있어서)

제주도 가내공업의 확연한 변화는 1920년대말에서 1930년대 초에 와서 이루어진다.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화 중 특징적인것은 수산물 가공품 이외에 양조업과 누룩, 양말, 옥도등이었는데 이 시기에 오면 제품명이 다양해지고 규모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앞서와 같이 두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즉 상품경제화와 자급화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 생산기반을 갖는 수산물 가공업이외에 옥도나 동식물기름 등과 같은 화학제품도 등장한다. 이처럼 제품이 다양해지고 특히 자급화 제품생산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당시 제주도 경제와 제주도민은 1910년대와는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 즉 생산의 참여나 이를 통한 소득의 창출면에서 제주도민들의 의지와 영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급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품으로 양말과 양조업, 이의 원료가 되는 누룩 등이 있다. 또 양말이나 양조업 역시 도내소비를 충족시킬 만큼 생산이 급성장한 대표적 제품이었고 거래가 가장 왕성했던 제품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아래 〈표 4〉를 이용하여 좀 더 살펴보자.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표 4〉 공장생산고표(1929년중) (연간 생산액 5천원 이상)

공 장 별	공 장 수	자 본 금	생 산 고		
			수 량	價 額	
양 말	3	15,000	13,500타		
통 조 립	9	123,000	쇠 고 기	17,000상	227,000
			완 두 콩	7,000	40,000
			고 등 어	1,500	7,300
			전 북	600	9,470
			소 라	6,780	77,970
조 개 단 추	5	12,500	19,600마스		
소 주	5	87,000	1,215石		
표 고 버섯	6	53,500	17,400斤		
沃 度	2	130,000	7,000파운드		
모 조 진 주	2	7,000	22,000두		
개 량 미 역	2	57,000	75,000貫		
전 력	1	100,000			
누 룝(麵子)	1	10,000	250,000貫		
계	36	588,000			

연간 생산이 2천원 미만인 공장은 위 표의 2할정도로 보며됨.

자료: 부산상업회소, 『제주도의 경제』, 1930, p.44.

〈표 4〉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전에 비해 수산물가공뿐 아니라 농축산물 가공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고기나 완두콩 통조림이 그것이다. 이들 제품은 1930년대에 가서도 여전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특히 일본의 군수 제품화가 되면서 규모면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한다 이외의 제품들을 보면, 조제품인 옹기,기와 쟁기 및 가정공업품인 면포(연간 3만7천척, 가격은 8만3천원)죽세공(연간 3만4천개, 가격2만7천원), 갓(8만7천개, 가격7만5천원) 양태(17만근, 가격 4만4천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던 것이 점차 외부의 투자가 늘어난 1930년대에 와서 비로서 양말, 어패류 및 축우를 원료로 하는 통조림제조, 해조류를 원료로 하는 옥도제조, 조개껍질을 원료로 하는 단추제조, 도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양조업, 이의 원료가 되는 누룩의 생산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대표적인 몇몇 공장을 살펴보면,

양말공장은 1930년대에 와서 소규모 기계공장으로 자리잡았고, 통조림 공장은 1930년대 초 전도적으로 16개가 있었다. 옥도공장은 감태, 말(馬尾草)을 태운 재를 화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원료의 공급계약으로 생산량은 크지 않지만 해방 이후까지 꾸준히 생산되어 왔던 제품이다. 모조진주공장은 이른바 유리구슬 제조공장으로 전적으로 일본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주도 경제에 있어서 별의미는 없다. 한편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본에 돈벌러 갔다온 직공이 일본인 자본가의 도움으로 원료인 유리막대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다시 이를 가공 수출하는 일종의 가공공업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는 아주 부분적이었고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누룩공업은 양조업원료인 누룩을 제조하는 것으로 도내소비용인 양조업의 발달과 함께 농촌부업적 성격을 띠며 급속히 증가하였다.

면직물 생산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농촌의 면직물업은 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평균적으로 영세한 농가부업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기술적으로도 전래의 기구에 의한 극히 낮은 생산력 단계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자연경제의 잔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식민지하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 농가의 경제적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다시 말하면 자급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화의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을 지닌 농촌부업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농촌부업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농가의 수입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조성원, 전계논문, pp.159~172.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표 5〉 제주도 농가수입현황(1926년)

(단위: 円, %)

	주업 (농업) 실수입	부업수입(총수 입중의 비율		판매, 조월고(부 수입중의 비율		품목	피고 노임수	총수입 4 (1+2+3)
		2		A (A/2×100)				
〈제주면 일도리〉								
자작농 중농	333	290	(46.5)	260	(89.7)	한약,조선모자	-	623
소농	184	78	(18.9)	55	(70.5)	조선모,면화,고구마	150	412
자작겸소작농중농	159	30	(15.1)	17	(56.7)	소채,면화	10	199
소농	70	78	(46.2)	64	(82.1)	소채,면화,고구마,조선모	21	169
자작농 중농	151	44	(22.6)	41	(93.2)	조선모,면화	-	195
소농	80	29	(20.9)	29	(100.0)	조선모,면화	30	139
세농	74	30	(20.8)	30	(100.0)	조선모	40	144
〈좌면 법환리〉								
자작농 중농	429	47	(9.9)	31	(66.0)	양잠,양돈,양계	-	476
소농	291	36	(11.0)	28	(77.8)	양천,양계	-	327
자작겸소작농중농	193	16	(5.5)	16	(100.0)	양돈,양계	80	289
소농	214	55	(20.4)	53	(96.4)	양돈,양계,양천	-	269
자작농 대농	218	17	(7.2)	15	(88.2)	양돈,양계	-	235
중농	189	20	(9.6)	20	(100.0)	양돈,양계	-	209
소농	141	1,039	(88.1)	937	(90.2)	소주제조,양돈,양계	-	1,180
세농	201	16	(7.4)	15	(93.8)	양돈,양계	-	217

자료: 藤永壯,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7, p.90.

〈표 6〉 제주도 농가의 농업 이외의 수입 현황 (1929년)

제주읍

종별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소작농					
	중농		소농			중농		소농			중농		소농		세농	
	한약 종상	선인 帽子	선인 帽子	면화	甘藷	蔬菜	면화	소채	면화	甘藷	선인 모자	선인 모자	면화	조선 모자	면화	선인 모자
생산고	-	80圓	100	150근	150관		250근		300근	100관	70圓	70圓	100근	50망	50근	60망
	-	40圓	50	13	15	8	22	9	24	10	36	35	9	25	4	30
자가 소비	-	-	-	150	100		100		50	50	-	-	40	-	-	-
	-	-	-	13	10	4	9	5	4	5	-	-	3	-	-	-
자가 소비	-	80	100	-	50		150	-	250	50	70	70	60	50	50	60
	-	40	50	-	5	4	23	4	20	5	36	35	6	25	4	30
피고노 임수입	-	-	150			10		21					30		40	

서귀포

종 별	소 작 농								
	대 농		중 농		소 농			세 농	
	양 돈	양 계	양 돈	양 계	조선소주	양 돈	양 계	양 돈	양 계
생 산	1	18	1	20	20석	2	5	1	17
	8	9	10	10	1,000	26	3	8	8
자 가		3			2		3		2
		2			100		2		1
판 매	1	15	1	20	18	2	2	1	15
	8	7	10	10	900	26	1	8	7

자료: 조선총독부(1929), 전계서.

〈표 5〉와 〈표 6〉은 1920년대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농촌경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농가부업 중 조선모자와 소주등과 같은 제품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지닌다. 즉, 조선모자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수공업 제품으로 육지부의 전반적인 소비감소로 점차 축소되어 가던 제품이었고, 소주는 도내 자급용으로 누룩과 함께 생산이 증가하던 제품이였다. 소주는 농촌의 부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가내공업은 이분화과정을 겪게된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진전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일면퇴보, 일면진전의 두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⁹⁾ 당시 진보의 경향을 보이던 품목은 양말, 罐詰, 貝物, 곡자, 옥도, 양조, 縲綿공장 등이고 퇴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품목은 양태, 망건, 탕건, 모자 등이다. 양말이나 양조 등의 품목은 자급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품목으로,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도내소비의 증가에 기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던 품목이던데 반하여 양태, 망건 등과 같은 전통적 수공업은 육지부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반출량이 줄어든 탓에 기인한다.

다음의 〈표 7〉에서 1930년대 제주도의 가내공업이 상품화와 자급화, 품목에 따른 일부퇴보, 일부진전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품목의 다양화이다.

9) 高嶺鍾, 전계서 p.36.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표 6〉 제주도 농가의 농업 이외의 수입 현황 (1929년)

종 류	종사호수	1 개 년 생 산		종 류	종사호수	1 개 년 생 산	
		수 량	價 額			수 량	價 額
면 포	1,952	29,745	89,235	조 선 직 チヨツキ	80	47,800	38,240
마 포	876	2,779	11,116	農 具	2,000	2,800	2,000
건 포	118	723	5,785	養 蠶 具	110	1,410	573
素 燒 物	312	40,300개	14,105	牛 馬 具	2,200	4,600	3,220
瓦	3	98,000	6,860	漁 具	220	468	728
鐵 鑄 物	19	5,800	37,700	朝 鮮 飴	7	1,600관	2,880
眞 鍮 器	5	2,000	1,200	菓 子	10	6,200	16,220
煙 管	85	2,300	1,955	洋 靴	1	280족	3,080
指 物	119	2,700	13,500	鮮 靴	82	2,460	8,610
朝鮮木履	17	2,500족	2,290	牛 脂	300	3,760관	4,510
竹 籠	275	32,700개	13,450	豚 脂	200	297	594
櫛	18	95,300	15,248	荏 油	50	12석	1,500
莞 草 歷	230	3,520매	6,688	胡 麻 油	600	21	3,990
茅 草 歷	250	18,000	8,100	菜 種 油	120	19	4,560
藁 歷	8,400	37,672	35,679	椿 油	60	13	3,900
繩	7,400	63,029관	7,400	乾 海 苔	110	2,660관	19,940
草 鞋	12,800	78,400족	15,680	搗 布 灰	150	7,300	1,825
笠 子	330	163,500개	163,500	改 良 和 布	100	9,700	23,280
涼 太	13,700	1,350,000	405,000	明 鮑	30	1,656	24,840
宕 巾	128	9,300	15,810	海 扇	20	2,860	24,740
網 巾	812	59,000	59,000	청량음료	2	4,146타	6,200
農 笠	19	7,900	4,440	기 타			134,000
양 복	6	560着	17,100	계			1,280,230

자료: 상계서 pp.79~81.

이 당시 다양화된 제품들을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우선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던 각종 방직물, 양태, 탕건등과 같은 관물,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이 있었다. 한편 수입대체 혹은 도내자급화 성향을 보여주는 양말,

양화, 양복, 농기구, 이외에 과자, 청량음료등이 있다. 이는 도내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일용품으로 제품생산의 또 다른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제품은 일종의 화학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기름이다. 주로 동식물기름인데 이 역시 당시 소비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생산된 제품이라고 여겨진다. 화학공업은 육지부에서는 근대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질 유지와 동물질 비료의 성장에 의해 전체 화학공업의 성장이 이루어 졌고, 그것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호당 생산액의 증가를 동반한 성장이었다고 한다. 반면 식물질 유지와 식물질 비료의 경우는 지극히 낮은 호당 생산액을 보이고 있어 자급적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도외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었고 육지부에 경쟁력이 있었던 제품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존재했다면 옥도, 조선관물, 각종 면포 정도였고 이외에 염화가리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 타 이출품 즉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제품에 비하면 생산 규모가 그리 크지는 못했다.

1930년대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한가지 방법은 이출제품의 분석이다.

〈표 8〉 1935년 이출 상황

(이출 상황)

(단위: 円)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말	27,747	소	119,550	대 맥	45,483	소 맥	1,407
대 두	5,626	조	205,266	석화채	27,321	화 포	59,082
은행초	1,745	실 면	86,064	沃 度	9,776	염화가리	5,280
우 골	405	우 피	30,728	계 란	27,242	고 구 마	18,408
조선관물	11,550	봉 밀	9,294	면 포	2,421	마 포	2,955
제충국	24,280	박 하	2,770	잡 조	6,000	명 포	1,224
연자동	16,137	포	29,590	흑 동	4,392	경	52,500

자료: 濟州島廳, 『제주도세요람』, 1939, pp.60~76.

〈표 8〉에서 이 시기의 이출상황을 보면, 1930년대 제주도 농촌의 상품경제화의 반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제충국, 고구마 이출증가가 단적인 예이다. 즉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이 아닌 상품화, 환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의 등장이다. 가내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관물이나 여러 방직물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생산이 유지되고 있고 이외에 옥도, 염화加里등이 소량이지만 이출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런 분석만으로는, 1930년대 제주도 가내공업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 가내공업의 성장세가 <표 8>에 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파악하는 데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상품화 제품과 함께 자급화 제품의 성장을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입제품의 분석과 그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당시 제주도 농촌의 소비변화까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공장수 파악이다.

<표 9>는 1938년 제주도내 업종별 공장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급화의 목적을 가진 제품과 상품화 목적을 가진 제품의 구별과 각각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살필 수 있다. <표 9>를 기초로 이 시기 가내공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1930년 계속되어 오던 흐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으나, 다만 제품별 생산량의 차이, 총생산액중 비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양조제조, 이의 원료가 되는 누룩생산이 증가하였고 양말, 제빙 등 수입대체·자급화 목적 제품들이 증가하였다. 누룩은 주류업 이외에 높은 호당 생산액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선주의 원료로서, 가내공업부문 내에서 상품생산을 행하고 있는 주조업과의 밀접한 분업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조업의 발전경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1930년대 전반기에 한정한다면, 1934년에 조선주조세령을 개정하여 自家用酒製造免許制를 폐지함으로써 자가용양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¹⁰⁾

따라서 이 시기 이후의 가내공업부문의 酒造業은 시장에서의 실현을 전제로 한 상품생산이었다. 물론 그 이전의 주조업의 경우도 다른 식료품공업과는 달리 전업적인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주조업의 경우는 식료품공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호당 생산액을 보이고 있었는데, 약주와 탁주에 비해 청주와 소주의 호당 생산액이 특히 높았다.

10) 「朝鮮酒造稅令の改正公布」, 『경성상공회의소 경제월보』, 제222호, 1934. 6. p.139. 주세령 개정 이전의 면허건수는 1916년도에는 306천명, 1918년에는 가장 많은 370천명이었으나 1920년대 말에 대폭 감소하였다. 즉 1928년에는 5만여명으로, 그리고 1929년에는 2,605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었다. 「朝鮮に於ける釀造業の現況」, 『朝鮮の工業と其の資源』, 조선공업협회, 1937, p.175.

공장의 종류	자산총액	공장수	생산고	공장의 종류	자산총액	공장수	생산고
具類 제조업	144,000	12	249,550	소주제조업	188,000	12	355,000
牛馬肉제조업	-	-	355,200	麵子제조업	15,000	1	16,000
グリーンビス 제 조 업	-	-	68,000	제 빙 업	75,700	1	11,000
沃度제조업	112,400	4	9,000	발 전 업	53,600	1	22,961
洋纜제조업	2,000	6	6,000	탁 주 및 약주제조업	-	6	91,559
貝釘제조업	45,600	32	31,000	합 계	-	75	1,255,261

〈표 9〉 1938년 제주도내 업종별 공장수와 영업 현황 (단위:엔)
 자료: 濟州島廳, 전계서, p.93.

이외에 〈표 9〉에서 나타난 옥도는 만주사변 이후 수요가 증가한 군수품을 공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가내공업의 기반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발전업도 생겨났다.

1930년대에 와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며 성장한 도내 가내공업이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이의 규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료의 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부분적이거나 〈표 10〉을 이용하여 공산품의 비중을 살펴보자. 〈표 10〉은 1938년도 제주도내 오일장에서 이루어졌던 상거래의 합계를 나타낸 자료이다. 여기에서 보면 공산품목과 일용잡품중 일부가 도내 가내공업 생산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산품과 일용잡품을 합쳐 족히 총거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中には 도외로부터 반입되어 온 제품이 상당부분이었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내 자급화를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의 증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표 10〉 1938년 제주도 오일시장 상거래 (단위: 円)

농 산	수 산	공 산	축 산	임 산	일용잡품	기 타	계
679,957	534,797	2,291,439	621,121	247,034	1,346,536	365,858	6,086,742

자료: 상계서, 같은 페이지.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191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해오던 제주도 가내공업이 또 한번 변화를 겪은 시점은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군수물자가 되는 제품생산이 늘어나는 1930년대 중반 이후라 하겠다.

1930년대 중반 이후는 자급화 제품이나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주요이출제품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구마전분, 옥도, 각종 통조림등의 생산과 반출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해방직후 작성된 통계자료에서도 여전히 반영이 된다.

〈표 11〉 공업종류별생산고 (해방전 평균생산량)

종 별	수 량	금액(천엔)	종 별	수 량	금액(천엔)
酒 精	5,000석	15,500	纖維(호무스팡)	300마	900
옥 도	4,000	400	섬유(양모사)	500封度	800
염화가리	300톤	13,500	土 瓦	200,000매	2,000
패구(정제품)	40,000마스	5,200	白 灰	2,000포	800
패구(조제)	10,000관	2,000	인 쇄 물	50,000封度	5,000
燒 耐	2,000석	20,000	油 脂	40석	2,000
고구마전분	300,000관	84,000	沃角菜(뚝)	200톤	4,000
어패류통조림	50,000상자	50,000	醬 油	500석	500
우육류통조림	20,000상자	50,000	土 醬	5,000관	250
그린피스통조림	2,000상자	2,000	製 材	200,000材	1,000
철공업(마차)	500대	400	정 미	20,000석	400
철공업(농기구)	20,000개	1,000			
제 빙	1,500톤	200	계		261,850

자료: 조선은행조사부편, 『조선경제연보』, 1948,p.地 7.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마전분, 각종 통조림, 옥도의 생산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타제품생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일본제국주의 병참기지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193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제주도의

가내공업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군수품 조달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갔고 이러한 특징이 해방 직후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제주도의 가내공업은, 개념적용의 측면에서는 육지부와는 다른 면이 나타나지만, 특징이나 전개면에서 거이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품화와 자급화라는 두가지 의도를 가지고 소득증대, 농촌경제의 성장이라는 목적속에 적절히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육지부와 다른 경제적 환경으로, 생산되는 제품내용이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어진 자연자원과 경제적 상황속에서 최선을 추구해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즉 육지부의 논농사지대와는 달리 짚생산이 없었기 때문에 짚제품 예를 들면 가마니와 같은 제품의 생산이 없었지만, 그 대신 수산물 가공업, 나중에는 농산물 가공업등과 나중에는 군수물자가 되는 여러제품들의 상품화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내공업 생산주역들이 가지는 주체적 생산역량이다. 1930년대 제주도의 농촌은 농업생산에 있어 시장의존도 혹은 상품화가 심화되고 소비에 있어서도 소비규모가 커지면서 현금수요가 많아지는 등 자급체제의 붕괴가 바로 식민지시장경제로의 '급속한 편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시기 제주도 경제는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 주체적 역량이 없어 보이고 식민지 모국에 대한 공산품 소비지역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가내공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즉 주어진 자연자원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소득창출의 계기를 확장시켜가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시 제주도 경제 혹은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체적 역량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미흡한 점은 가내공업의 성장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이다. 몇가지 자료에서 가내공업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을 발견하였다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하더라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서 제주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다소나마 보충하기 위하여 이출입이나 제주도내 상거래 규모를 살펴보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京畿道 內務部社會科(1928), 「京畿道農村社會事情」.
高禎鍾(1930), 「濟州島便覽」.
南仁熙(1985), 「濟州農業의 百年」, 제주:태화인쇄사.
釜山商業會議所(1930), 「濟州島と その 經濟」.
안병직 외(1988), 「朝鮮近代의 歷史像」, 일본평론사.
안병직 외(1990),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비봉출판사.
안병직 외(1993),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일조각.
안병직·정영일 편(1990), 「日本經濟의 近代化」,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李如星·金世鎔(1931), 「數字朝鮮研究」, 세광출판사.
立正大學日韓合同韓國濟州島學術調查團(1988), 「韓國濟州島의 地域研究」.
장지용(1999), “1930년대 가내공업 주요 생산품 분석”, 경제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장지용(1999),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全羅南道濟州郡廳(1914), 「濟州郡勢一斑」.
全羅南道濟州島廳(1914), 「濟州島勢一斑」.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1939), 「濟州島勢要覽」.
제주우당도서관 편역(1995), 「濟州島의 地理的 研究」.
제주우당도서관 편역(1997), 「濟州島의 옛 記錄」.
제주우당도서관 편역(1997), 「20世紀 全般의 濟州島」.
조선은행조사부편(1948), 『조선경제연보』.
朝鮮總督府(1930),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朝鮮總督府(1930), 「朝鮮國勢調査報告, 全羅南道編」.
조성원(1998), “가내공업의 의의와 생산액 추계문제”,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姬野實 編(1940), 「朝鮮經濟圖表」, 조선통계협회.